



건강앳세이

# 看護員 그리고 看護學



孫 哲

## 밤낮이 구별없는 착한 나이팅게일

간호대학 일을 한 4년 말다 보니 전엔 모르고 지났던 맛가지 않은 내평이나 거 탈들이 한사코 돌보이게 되고 그만큼 생각에 잠기게 하였다.

그나마 뜻하지 않은 신병으로 한달 가까이 입원해 있는 동안 병실 간원호들의 몸 가축이나 옷거리에서 몸소 받은 느낌은 한결 심각하였다.

학생시절에는 무척 밝았고 화사했던 그녀들의 얼굴 모습이 그리도 굳어지고 잔주름에 이즈러진 언뜻 보기에 딴 사람인가 싶을 만큼 수삼년 동안에 달라져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외모뿐이 아니라 전문 용어로는 퍼스낼리티 체인지(性格變化)가 일지 않았나 싶게 말

이다.

아무래도 온밤 드새우며 10시간 안팎의,그나마 열흘이 넘도록 계속 밤 근무만을 감행해야 하는, 일컬어 나이트라는 이름의 고달픈 탓일레라!? 한창 피어나고 무르익어 데이트에 바쁘고 청춘을 즐기다 시집을 가야할 큰 애기들인데도 말이다.

생각하면 8·15 이후 간호직 만큼 일반적인 사회적 문화적 지위가 향상된 직종도 드물 것 같다.

이러테면 예전의 양성소가 지금은 대학에 이르렀고 호칭 또한 간호부(婦)에서 원(員)으로, 또 어느새 선생님이고 보니 불일 간에 간호사(師)라 불려야 하

겠다는 추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직종의 지위나 호칭에 대한 도도한 기세만큼 경제적 대우나 그 밖의 것들이 실질적으로 높아진 것은 아니라는 현실에, 아무도 외면하는 이 없을 것이다.

못지않게 답답한 노릇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요지경 속인 간호학의 학문적인 근거나 그 미래에 대한 해방에 대해서다.

의학(醫學)과의 관련이 어찌면 비 동질적인 학문의 카테고리인 양 오인하고 의학의 범주에서 무턱대고 배돌으려 드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가 하면 의학과 대등하고 대립적인 학문인 양 오도(誤導)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불안감 내지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무슨 뜻인가를 보다 알기 쉽게 밝히기 위해 서로 오간 대화 한 토막을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한 모아(母兒) 간호학 전공(專攻)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 제목이 영아(嬰兒) 사망율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보건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대학원생인 한 아가씨가 문기를

『도대체 영아 사망율과 간호학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하는 굴침스런 질문에 얼마나 애운했던지 아연 실색하고 나서 한참을 망설이다,

『현대에 와서 어린이들이 전보다 훨씬 덜 앓고 덜 죽게 된 원인이 고도로 발달된 의학만의 탓이었다 말입니까』고 반문할 밖에 없었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패기에 찬 젊은이들의 이렇게 편협한 이념(理念)이나 태

도에 대해 어찌면 저항감마저 느끼다가도 의학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고수하려 드는 고루한 자세일지 모른다고 자책(自責)해 보기도 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의학 자체부터가 히포크라테스 이후 줄곧 응용 생물학의 테두리요, 소위 패러싸이언스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처지이기에 말이다.

그렇다 해서 내가 전에 본 영국(英國)의 경우처럼 소아과 전문의가 따로 없었을 때 내과학회원(內科學會員)으로 등록돼 있는 소아과 의사들이 내과 학회에서 벗어나 소아과 학회로 독립하고자 아무리 합법적으로 몸부림 쳐대도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묶여 해마다 아우성으로만 그치고 마는, 그러한 딱한 상황(狀況)을 염두에 둔 한낱 퇴물(退物)의사의 퇴색된 학문관(學問觀)만이 아니기를 바랄 따름이다.

아 물론 간호학이 새판잡이로 정립(定立)되고 발전해 나아 가기 위해서는 그 학문적 입각점 아니면 근거가 현실적인 관점에서 어디까지가 의학과는 불가피하게 오벌랩 해야되고 어떤 데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는가에서부터 열심히 그리고 굳건하게 헤아리고 두고두고 근사를 모아야 하리라 믿는다.

원어(原語)로 따지자면 MEDICINE NURSING CARE 등등 말의 뜻부터 보다 과학적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내 노파심 임이 분명하지만 간호학을 전공하며 학사가 되고 또 간호원 자격을 따고 난 젊고 아릿다운 아가씨들이 모처럼 터득한 학(學)과 술(術)이기에 모든 일 저버리고 한 3년 밤낮을

분별할 겨를이나 경황도 없이 착한 나이팅게일을 착실히 실천하고 나면 최소한의 결혼비용 쥘 스스로 마련될 수 있을 만한 경제적 보수가 확보 되어야 하리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언제든가 이웃나라 신문에 의하면 어떤 송사(訟事)가 있어 간호원들이 제복 차림으로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섰는데 모자를 벗으라는 법관의 명에 항거

하면서 간호원들이 쓰고 있는 캡 또한 재판관들이 쓰고 있는 제모(制帽)와 똑같은 뜻을 지닌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랑이를 벌렸다는 소식이다.

우리나라도 제 직책에 대한 긍지와 자존과 기개가 이에 못지 않으리라 굳게 믿고 있다.

(1985·12·10)

(필자 = 전남대명예교수 · 의박)

## 바른건강생활

즐거운 연말연시……

지나친 술은 몸을 상하게 합니다.

망년회와 신정 연휴등으로 술을 마실 기회가 많아지는 때가 왔다.

적당한 음주는 혈액순환을 좋게해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과음은 해롭다. 건강을 위해 술을 요령있게 마시는 법을 알아두자.

공복에는 가급적 술을 삼가야 한다. 알콜은 위에서도 흡수가 되는데 위가 비면 흡수가 빨라 취하기 쉽다.

또 안주를 먹지않고 술만 마시면 위점막에 상처가 쉽게 생기고 이런 음주방식을 계속하면 간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유나 치즈 등을 먹어 공복을 피한 다음 술을 마시도록 하고 마시는 동안에는 단백질이 많은 음식물을 안주로 먹는 것이 좋다.

연일 술자리가 계속돼 진수성찬을 지나치게 먹으면 비만과 알콜성 지방간이 될 염려도 있지만 간장에서 알콜을 분해하기 위해

서는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하고 영양을 균형있게 취하면 간장에 미치는 해로움도 가볍게 할 수 있으므로 큰문제는 없다.

보통사람의 경우 주량의 1일 한도는 맥주가 큰병으로 3병, 위스키는 더블로 3잔 정도이다.

따라서 주량의 한도내에서 밤 12시까지만 술을 마시면 다음날 아침 8시에는 완전히 깬다. 그러나 여러 가지 술을 섞어 마시면 양을 가늠하지 못해 도를 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불유쾌한 기분으로 술을 마시면 많이 취해 몸에 해로우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마셔 스트레스를 발산시키도록 한다.

술을 마신 다음에는 디저트로 감과 꿀을 먹으면 과당이 알콜을 분해하고 취기를 깨우는 작용이 있어 뒤가 깨끗해진다.

한편 과음을 하면 위점막이 혈이 심한 때는 출혈이 있고 궤양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아침 식사를 해 위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오토밀과, 우유 등 가벼운 음식물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피 등 카페인 함유된 음료도 역시 삼가는 것이 좋다.